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

대한민국 대전환
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12.10.(금)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과장 김희순, 사무관 천해선 (044-200-2287, 2298)

오미크론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 다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, 인천시 미추홀구 찾아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점검

-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반드시 막아야...조금이라도 오미크론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 역학조사·선제검사 실시하고 신속히 격리조치
-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외국인 집중과 방역관리 강화할 것 당부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0일(금) 오전, 인천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, 이어서 인천 미추홀구청(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)을 방문해 수도권 현장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.

- 오늘 현장간담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일상회복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한 국면에서,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방역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

* △인천시장(박남춘), 건강체육국장(정현섭), 보건환경연구원장(권문주) △미추홀구 구청장(김정식), 보건소장(위경복) △국무조정실장, 총리비서실장, 사회조정실장

□ 김부겸 총리는 위경복 미추홀구 보건소장과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보고받은 후,

- “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히 찾아내고 이후 공항검역을 강화해 추가유입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최초 확진자들과 접촉자 간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”면서 방역협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.

- 김총리는 “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며, 이제부터는 확산 속도가 빠르면서 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”,
 - “이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오미크론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포괄적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조치도 지체 없이 취할 것”을 지시했습니다.
- 또한 “인천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 외국인의 접종과 방역관리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며,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”고 강조했습니다.
- 이와 함께 김총리는 현장의 방역관계자들에게 “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방역으로 힘드시겠지만 “이번 확산세를 안정시켜야만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다”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 상황 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”을 당부했습니다.